

전일동향

전일대비 0.40원 하락한 1,468.00원에 마감

3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0.40원 하락한 1,468.0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.40원 하락한 1,468.00원에 개장했다. 오전장에서 환율은 1,471.20원까지 레벨을 높였으나, 달러 약세 및 국내증시 외인 매수세에 하락 전환했다. 다만, 결제 수요 유입 등에 환율의 하단은 제한되며, 1,468.0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4.7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43.63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68.00	1471.20	1463.70	1468.00	1468.70
	엔화	942.18	946.62	940.79	945.60	-
	유로화	1706.87	1714.23	1704.81	1712.48	-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1.97	-6.5	-12.05	-19.93
	결제환율(수입)	-1.4	-5.31	-10.07	-16.5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美 민간고용 둔화에...1,46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10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68.00) 대비 1.80원 하락한 1,464.1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12월 금리인하 기대를 바탕으로 한 달러 약세를 쫓아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국 11월 ADP 민간고용은 3.2만명 감소하며 예상치(+1.0만)를 하회했다. ISM 11월 서비스업지수는 52.6으로 전월치(52.4) 및 예상치(52.1)를 상회했다. 이에 미국 국채금리는 장단기에서 모두 소폭 하락했으며,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95%까지 상승했다. 뉴욕증시는 연준의 비둘기 성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다우지수 +0.86%, 나스닥 +0.17%, S&P +0.30%로 마감했다. 한편 파운드화는 영국의 재정적자 축소 가능성에 급등했다. 달러화는 민간고용 약화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 및 파운드화 강세에 0.43 하락한 98.91을 기록했다. 금일 환율은 달러 약세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연말을 앞둔 수출 및 중공업체 네고 물량도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수입업체 결제 등 실수요 저가매수는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60.00 ~ 1470.00 원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2816.44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.80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47882.9, +408.44p(+0.86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88.15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0742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